

이름 없던 신생아 거둔 따뜻한 사람들...

30대 부모 생후 3일된 아이 산후조리원에 유기 8개월간 잠적했다가 최근 검거돼 현재 재판 중 사법기관·대학, 작명·출생신고·지원 머리 맞대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버려진 신생아에게 검찰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법적으로 제약이 걸린 '출생신고'를 위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가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학 철학과 교수의 도움으로 이름까지 지어준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간 잠적한 A(36·여)씨와 B

(34)씨 부부를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된 자녀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할 주임검사는

피해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제주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변호사회는 피해아동의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이 마무리되면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아동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협의를 진행했고, 철학과 교수가 피해아동의 이름 다수를 지어줬다.

이후 검찰이 피해아동 부모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이름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피고인(A씨 부부)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피해아동은 세상에 없는 아이였다"며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이틀 연속 한자릿수 코로나 확진 12일 오후 5시 기준 6명...2명은 집단감염 고리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4857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에는 5명이 확진됐다. 제주지역 확진자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보인 것은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신규 확진자 6명의 감염 경로를 분류하면 4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2명은 타 지역 방문객이다. 또 신규 확진자 중 2명이 기존 집단감염인 '서귀포시 초등학교 2'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집단 누적 감염자 수는 모두 34명으로 늘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020년 관광객 해안산책로 추락사고 재판 "도지사 책임... 공무원 과실치상 무죄"

관광객 추락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책임을 묻더라도 하급 공무원이 아닌 제주도지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2일 제주도 한림읍 한수리 해안산책로에서 관광객 B씨가 기대고 있던 난간이 파손돼 3m 아래로 추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해경은 A씨 등 두 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약식(벌금 300만원)으로 기소했다. 사고 전 해당 난간에 대한 파손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임시수리만 진행하는 등 사고 자체가 '인재(人災)'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 등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어촌·어항법과 제주특별법을 보면 시설물 점검·보수의 의무는 제주도지사에게 있지만, 이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며 "즉 이번 사고의 책임은 사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도지사에게 있지, 권한이 미미한 피고인들에게 있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A씨는 "사고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만 묻는 게 의아했다"며 "그동안 힘들었는데, 출가분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오일장의 재미, 군것질 12일 장이 열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따뜻한 간식을 먹으며 추위를 녹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나, OO 기자인데..." 시청서 난동 30대 입건

자신이 SNS(사회관계망) 기자라며 제주시청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원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청 등에서 수차례 폭언과 협박 등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시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민원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통행차단 시설물 철거 명령은 정당" 주택단지 주민회, 서귀포시 상대 취소소송 패소

통행 차단 논란을 빚고 있는 비오토피아 입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까지 들고 나왔지만 재판을 뒤집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12일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취

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서귀포시 소재 고급 주택 단지인 비오토피아가 2014년부터 진입로에 경비실(컨테이너) 및 차단기, 화단 울타리를 설치한

뒤 외부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겨 공중의 통행을 차단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서귀포시가 지난 2020년 2월 3일 "국·공유지 도로 내에 임의 시설물을 설치, 도로를 전면적으로 점용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처분권한 흠결 등',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논리로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주민회)는 시설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인해 주택단지 입주민들의 평온과 안정을 해치게 되고, 사생활 보호도 취약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인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이 결국 불법적인 행위(도로법 위반)를 통해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코로나 시국 8명 생일파티한 여경 구설수

경찰 "사실 여부 확인 중" 현직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현행 방역수칙(사적 모임 4명)을 어기고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잇따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여경은 지난 6-7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인 등 8명이 모

여 생일파티를 했고, 이어 8일에도 5명과 술자리를 갖고 모임 사진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여경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내부 징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주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